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19, Vol. 8, No. 3, 111-127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서 인 희　　임 정 선‡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19명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 척도, 진로적응성 척도,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또한 T-검증을 통해 부모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부모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성별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진로적응성과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적응성 또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부 애착과 모 애착을 구분지어 살펴 본 매개효과는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부모 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

---

* 본 원고는 서인희(2019)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임정선 / 서울사이버대학교 특수심리치료학과 /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Tel: 02-944-5571 / E-mail: jslim@iscu.ac.kr

Ⅰ. 서 론

인간은 다양한 진로 활동과 선택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 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성공적인 진로발달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급격한 산업발달에 따른 경제의 세계화 및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국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의 사회적 변화는 세계화에 따른 진로 선택의 확대, 직업의 생성 및 소멸의 가속화, 청년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대학생의 진로 탐색 및 적응에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인 진로 발달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확실함에 대한 안정감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적절히 적응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위한 적응기제로서 자기조절적인 역량으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한 변인(박수영, 2016)인 진로적응성에 주목하였다.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은 자신의 진로 관련 행동과 직업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 진로를 구성해 나아가는 생애설계적 의미의 진로구성주의이론(Career Construction)의 핵심개념이다(Savickas et al., 2009). 진로적응성은 Super (1957)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진로의 발달수준을 뜻하는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후 세계적 경제혼란에 따른 대규모 실직과 진로전환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Super는 진로의 재순환 개념을 포함한 전생애주기-생애공간이론(Life-span, Life-space Theory)을 주창(Super, 1990)하고,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에 더욱 적합했던 기존의 진로성숙이라는 개념 대신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으며(Super & Knasel, 1981), Savickas가 진로구성주의 이론에서 진로적응모형 및 CAAS(Career Adapt-Abilities Scale)를 개발하면서 진로적응성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구체화 되었다(유지연, 신효정, 2019).

Savickas(1997)는 진로적응성을 미래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적응성은 개인의 진로발달 핵심요인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주고(Hirschi, 2009),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가능케 하여(Creed, Muller, & Patton, 2003; Germeijs & Verschueren, 2011)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또한 진로만족과 자기 평가에 의한 진로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며(Zacher, 2014), 진로 성공(Hall, 2002; Pulakos et al., 2000)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소아, 배성아(2015)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적응성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진로분야에서 진로적응성의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로적응성이 전환기의 도전과 어려움에 대처 가능한 자기조절적 자원으로써, 진로발달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는 Savickas(1997)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후기청소년기와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한편, 진로 탐색 및 선택 그리고 전환이라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개인은 다양한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본격적인 진로 탐색과 선택의 중심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예견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과 실패에 대한 불안감은, 심리

사회적 문제로 확대 연결되기도 한다. 때문에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높은 학력수준에도 불구하고 열등감과 불안, 죄책감, 사회적 분노로 인한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이곤 한다. 적절한 수준의 취업불안은 동기유발체로써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지나친 불안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조규판, 2008) 원활한 진로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진로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내적인 안정을 위한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관계 중심적이며, 부모-자녀관계에서 독립보다는 정서적 친밀감이 중시된다(박수길, 이영희, 2002).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전생애 발달관점은 후기 청소년기 동안에도 심리적 독립과 더불어 부모와의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enny, 1987; Lapsley, Rice, & Shadid, 1989). 부모 애착은 가장 근본적인 형태로 개인의 안정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애착변인에 주목하였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로서 부모에 대한 안정적인 관계 욕구를 희망하며, 부모에 대한 무한 신뢰를 통해 점차 자신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게 된다. 애착(Attachment)에 대해 Bowlby(1958)는 생애초기 가장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느끼게 되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중 부모 애착은 부모-자녀간의 안정적 유대감을 뜻하는 것으로, 어릴 적 유아기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삶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Bowlby, 1988).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정서적·인지적으로 내면화되어 하나의 안정적인 표상체계가 형성되며, 이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써 성인기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Bowlby, 1988). 즉 부모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고 보호받은 경험이 있는 유아의 경우는 스스로를 가치 있고, 적응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되며,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작동되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적이며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새로운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거부 또는 비일관적인 애착을 경험한 유아의 경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거나 혼란스럽게 인식하는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부를 예상하거나, 타인과 믿을만한 관계형성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이상훈, 2005).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대학생들에게 심리적 안녕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압도되지 않고 심도 높은 진로탐색과 진로발달을 가능케 하며(오지혜, 윤혜미 2017; 진현정, 2011), 대학생의 적응이나 안녕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Armsden & Greenberg, 1987). 이러한 부모 애착은 안정과 불안정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되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형성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Blustein, Prezioso, & Schltheiss, 1995; 김선미, 2018). 따라서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초기 주양육자와의 정서경험을 통해 얻어진 개인의 내적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의 진로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충분치 않아 두 변인간의 다양한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연구 자료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석은과 하창순(2017)의 연구를 통해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정적상관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연구로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진로적응성이 증진된다는 송보라와 이기학(2014)의 연구, 애착관계가 진로미결정, 진로정체감, 진로적응성을 포함하는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힌 최옥현(2006)의 연구를 통해서도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Bretherton(1985)은 애착 연구가 전 생애에 걸쳐 확대되고 있으며, 유아기에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의 성장 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정과 불안정 애착의 질적 차이는 초기에 형성된 주양육자와의 애착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Bretherton & Munholland, 2008).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개인의 내적작동모델에 변함없이 부모 애착이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에 대해 살피는 것은 충분히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시기는 후기청소년에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때로, 스스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사고 및 행동이 가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입식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상당수 대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인 진로발달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원만한 진로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진로발달 위한 방안 탐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측하기 힘든 진로 환경에서 잘 적응하기 위한 능력인 진로적응성은 스스로 탐색하고 해결하며 결정해 나아가는 자발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성은 내재적 동기와 깊이 관련되어진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의 소이론에 속하는 기본심리욕구 변인을 제시하였다.

기본심리욕구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 SDT, Deci & Ryan, 2000)에 바탕을 둔다. 자기결정성이란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주어진 사회적 환경 내에서 자신의 심리적 기본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형태로 행동하게 되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하위요소가 그 욕구에 해당된다. 자율성은 자신이 행동의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행하려는 기본욕구의 개념을 뜻하며(Ryan & Connell, 1989), 행동의 원인 소재를 자신 내면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유능성은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할 때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스스로 지각하게 되는 신념을 뜻한다(Deci & Ryan, 1985). 즉,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의미하기 보다는 그 행위로 인한 자신감과 효율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 욕구는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기회가 주어질 때 충족되어진다(김아영, 2010; 이민희, 정태연, 2008). 끝으로 관계성은 사회 또는 조직 속에서 구성원들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연관성을 느끼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배려 받는다고 느껴질 때 충족되어지는 욕구이다. 이러한 기본심리욕구는 충족될수록 내재적 동기가 증가되고, 자기결정성이 증가함으로써(Deci & Ryan, 2002), 스스로 행동의 주체가 되어 만족감을 가지며 행동하게 되고,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사회적 공헌도와 삶의 만족 또한 높게 된다(Ryan & Deci, 2000). 즉,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의 자기 결정성의 변화를 이끄는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며(Deci & Ryan, 1985), 이를 통해 바람직하고 만족할 만한 내재적 동기의 유발 또는 외재적으로 치우쳤던 동기들의

내재화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고, 정서 조절의 동기를 향상시켜 학교생활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백희숙, 2012). 더불어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동기, 학업수행, 적응 등에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인다(Deci & Ryan, 2000; Grolnick & Ryan, 1989).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에 부모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지지와 애착이 기본심리욕구 충족 및 기본적인 동기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됨을 뜻한다.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양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개인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수용과 저지에서 오는 경험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지지와 촉진을 통해 충족되어지고, 보다 기능적이고 적응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Deci & Ryan, 1985).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주어진 진로환경에서 보다 기능적이고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그러므로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피는 것은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한 또 다른 방법 모색으로 그 필요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그 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모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성별 차이는 각각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 진출의 기회와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직업 선택에 있어 남녀 구분의 경계가 약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부모애착과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성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차이를 살피는 것은 진로 발달을 위한 성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모 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차이는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는 각각 매개역할을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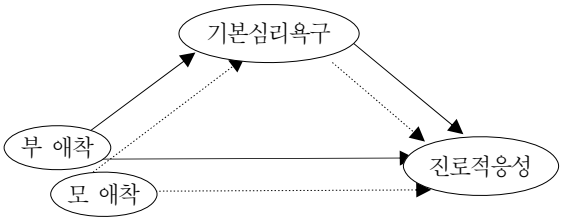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8년 8월 27일 ~ 9월 10일까지 지역에 제한 없이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였다. 전자설문을 기본 형태로 하였으며, 일부 전자설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수기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총 325부의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가 있는 응답을 제외한 총 31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만18세-22세(70.2%), 만23세-27세(23.8%), 만28세이상(5.9%)의 비율을 보였으며, 남학생이 162명(50.8%), 여학생이 157명(49.2%)의 비율을 보였다.

2. 측정 도구

가. 부모 애착 척도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척도 IPPA의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PA-R에서 또래에 대한 애착을 제외한 부모 애착만을 측정하였으며, 부 애착과 모 애착을 구분지어 살펴보았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 총점 합이 높을수록 부모 애착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옥정(1998)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부 애착 .93, 모 애착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96로 나타났으며, 부 애착 .95 모 애착 .94로 각각 나타났다.

나. 기본심리욕구 척도

기본심리욕구 측정을 위해 Deci와 Ryan(2002)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는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를 이명희, 김아영(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이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3요인으로 나뉘며, 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의 충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7, 각 하위요인별로 자율성 .70, 유능성 .75, 관계성 .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 각 하위요인별로 자율성 .82, 유능성 .86, 관계성 .83로 나타났다.

다. 진로적응성 척도

진로적응성 척도는 Savickas와 Porfeli(2012)에 의해 개발된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를 번안한 Tak(2012)의 척도를, 문항의 의미 전달이 보다 용이하도록 수정한 정지은(2013)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으로는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별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 요인은 개인의 진로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지, 통제 요인은 개인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고 촉진하는 내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지, 호기심 요인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관심 여부는 어떠한지, 자신감 요인은 도전적인 상황 또는 진로 과제 해결을 위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지를 의미한다. 정지은(2013)의 연구에서 진로적응성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90, 관심은 .77, 통제는 .78, 호기심은 .71, 자신감은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진로적응성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 각 하위요인별로 관심은 .86, 통제는 .88, 호기심은 .84, 자신감은 .92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 분석 하였다.

첫째, 대상들의 일반적 특성 및 변인의 수준을 규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피는 기술통계분석,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의 성별 차이분석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부모 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대상들의 부모 애착,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성의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 부모 애착,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성의 기술통계량 (N=319)

잠재변인	측정변인	*Min*	*Max*	*M*	*SD*
부모 애착		1.46	5.00	3.76	.65
	부 애착	1.16	5.00	3.70	.71
	모 애착	1.32	5.00	3.83	.67
	신뢰감	1.50	5.00	4.00	.66
	의사소통	1.22	5.00	3.44	.73
	소외감	1.00	5.00	3.85	.72
기본심리욕구		2.44	5.00	3.89	.55
	자율성	1.50	5.00	3.77	.72
	유능성	1.50	5.00	3.77	.71
	관계성	2.83	5.00	4.10	.58
진로적응성		2.50	5.00	4.08	.56
	관심	1.50	5.00	4.07	.64
	통제	2.33	5.00	4.12	.65
	호기심	2.17	5.00	4.05	.62
	자신감	2.00	5.00	4.06	.68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분석

부모 애착, 진로적응성,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각각의 성별 차이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부 애착($t=3.515,\ p < .001$)과 모 애착($t=2.125,\ p < .01$)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 보다 안정적인 애착을 보였다. 또한 진로적응성($t=5.727,\ p < .001$) 및 기본심리욕구($t=3.695,\ p < .001$) 역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두 변인 모두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변인인 자율성($t=3.010,\ p < .001$)과 유능성($t=4.019,\ p < .001$)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관계성에 있어서는 성별에 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부모 애착,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성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과 기본심리욕구($r = .570,\ p < .01$), 부 애착과 기본심리욕구($r = .540,\ p < .01$), 모 애착과 기본심리욕구($r = .527,\ p < .01$)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N	*M*	*SD*	*df*	*t*
부 애착	남	162	3.83	.63	303	3.515***
	여	157	3.56	.76		
모 애착	남	162	3.91	.63	317	2.125*
	여	157	3.75	.69		
진로 적응성	남	162	4.25	.54	317	5.727***
	여	157	3.90	.56		
기본 심리욕구_전체	남	162	4.00	.51	317	3.695***
	여	157	3.77	.57		
-자율성	남	162	3.90	.68	317	3.010**
	여	157	3.67	.74		
-유능성	남	162	3.92	.65	317	4.019***
	여	157	3.62	.73		
-관계성	남	162	4.16	.58	317	1.879
	여	157	4.03	.57		

$^{*}p < .05$ $^{**}p < .01$ $^{***}p < .001$

표 3. 부모 애착,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성의 상관관계 (N=319)

	1	1-1	1-2	1-3	1-4	1-5	2	2-1	2-2	2-3	3	3-1	3-2	3-3	3-4
1	-														
1-1	.941**	-													
1-2	.932**	.754**	-												
1-3	.938**	.878**	.880**	-											
1-4	.927**	.867**	.869**	.786**	-										
1-5	.885**	.847**	.810**	.775**	.735**	-									
2	.570**	.540**	.527**	.564**	.464**	.557**	-								
2-1	.466**	.458**	.413**	.457**	.355**	.500**	.803**	-							
2-2	.471**	.427**	.457**	.456**	.428**	.410**	.852**	.476**	-						
2-3	.475**	.454**	.436**	.489**	.364**	.471**	.821**	.474**	.622**	-					
3	.465**	.444**	.427**	.487**	.377**	.417**	.743**	.483**	.771**	.583**	-				
3-1	.360**	.354**	.319**	.381**	.290**	.318**	.572**	.375**	.579**	.463**	.844**	-			
3-2	.444**	.426**	.404**	.462**	.355**	.408**	.705**	.492**	.694**	.558**	.886**	.649**	-		
3-3	.371**	.366**	.327**	.380**	.317**	.319**	.564**	.336**	.604**	.459**	.862**	.664**	.676**	-	
3-4	.439**	.393**	.430**	.464**	.347**	.399**	.730**	.468**	.791**	.540**	.881**	.625**	.747**	.672**	-

$^{**}p < .01$

1 부모 애착, 1-1 부 애착, 1-2 모 애착, 1-3 신뢰감, 1-4 의사소통, 1-5 소외감,
2 기본심리욕구, 2-1 자율성, 2-2 유능성, 2-3 관계성, 3 진로적응성, 3-1 관심, 3-2 통제, 3-3 호기심, 3-4 자신감

둘째, 부모 애착은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인 자율성(r = .466, p < .01), 유능성(r = .471, p < .01), 관계성(r = .475, p < .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 애착의 하위요인인 신뢰감(r = .564, p < .01), 의사소통(r = .464, p < .01), 소외감(r = .557, p < .01)과 기본심리욕구는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부모 애착은 진로적응성(r = .46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 애착(r = .444, p < .01) 및 모 애착(r = .427, p < .01) 역시 각각 진로적응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섯째, 부모 애착은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인 관심(r = .360, p < .01), 통제(r = .444, p < .01), 호기심(r = .371, p < .01), 자신감(r = .439,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섯째, 기본심리욕구는 진로적응성(r = .743,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기본심리욕구는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r = .730, p < .01), 통제(r = .705, p < .01), 관심(r = .572, p < .01), 호기심(r = .564, p < .01)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4.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가.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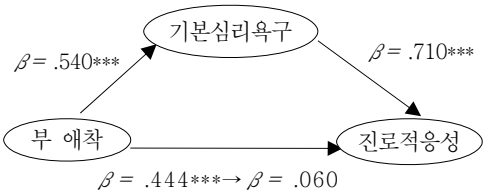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핀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1단계 분석 결과, 부 애착이 기본심리욕구를 유의미하게 예측했으며, 기본심리욕구에 대해 29.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540, p < .001). 둘째, 2단계에서 부 애착이 진로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했으며(β = .444, p < .001), 진로적응성에 대해 19.7%의 설명력을 보였다. 3단계에서 부 애착과 기본심리욕구를 동시 투입했을 때, 전체 설명력은 55.4%로 2단계의 19.7% 보다 증가되었으며, 3단계의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의 β값(β

표 4.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N=319)

단계	변인	B	SE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부 애착→기본심리욕구	.418	.037	.540	11.419***	.291	130.403***
2단계							
독립→종속	부 애착→진로적응성	.351	.040	.444	8.814***	.197	77.679***
3단계							
독립→종속	부 애착→진로적응성	.048	.035	.060	1.349	.554	196.444***
매개→종속	기본심리욕구→진로적응성	.726	.046	.710	15.918***		

p <.001 Sobel test : Z = 9.186 (***p < .001)

= .060)이 2단계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의 β값(β = .444)보다 감소되었다. 또한 3단계의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는 유의미하지못하였고,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적응성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설명되었다(β = .710, p < .001).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는 완전매개 하였으며, Sobel test 검증 결과, Z = 9.186(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냈다.

나.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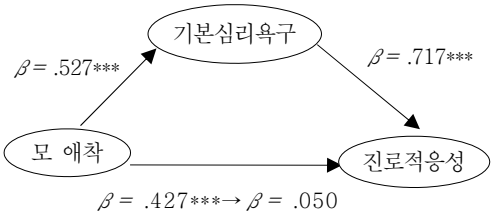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핀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첫째, 1단계 분석 결과, 모 애착이 기본심리욕구를 유의미하게 예측했으며, 기본심리욕구에 대해 27.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527, p < .001). 둘째, 2단계에서 모 애착이 진로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했으며(β = .427, p < .001), 진로적응성에 대해 18.3%의 설명력을 보였다. 셋째, 3단계 분석에서 모 애착과 기본심리욕구를 동시 투입했을 때, 전체 설명력은 55.3%로 2단계의 18.3%보다 증가되었으며, 3단계의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의 β값(β = .050)이 2단계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의 β값(β =.427)보다 감소되었다. 또한 3단계의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못하였고,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적응성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설명되었다(β = .717, p < .001).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는 완전매개 하였으며, Sobel test 검증 결과, Z = 9.055(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냈다.

표 5.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N=319)*

단계	변인	*B*	*SE*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모 애착→기본심리욕구	.436	.040	.527	11.044***	.278	121.967***
2단계							
독립→종속	모 애착→진로적응성	.362	.043	.427	8.414***	.183	70.797***
3단계							
독립→종속	모 애착→진로적응성	.042	.037	.050	1.120	.553	195.812***
매개→종속	기본심리욕구→진로적응성	.732	.045	.717	16.200***		

p < .001 Sobel test : Z = 9.055 (***p < .001)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 기본심리욕구, 진로적응성 각각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애착의 경우, 김점희(2017), 전소연(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 애착과 모 애착 모두 남학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김효정(2009)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모 애착에 대해 남학생의 애착이 보다 높게 나온 결과는, 기존 김정선(2017)의 연구결과인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게 나온 연구와 상반된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부모애착에 대한 성별차이는 부모애착에 대한 성별 차이의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성별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유의미한 차이 역시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강우(201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끝으로 진로적응성에 대한 성별차이는 여학생에 비해 주로 남학생이 더 높은 진로 적응성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의 여러 연구(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유순화, 2016; 김수정, 2012)들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예기치 못한 진로 상황에서 진로적응이 보다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확대된 여성의 진로 선택의 기회에 맞춰 원활한 진로발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한 남녀 각각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기본심리욕구, 부모애착과 진로적응성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높아지며, 부모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애착과 기본심리욕구 간의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이희은, 2012; Wei, Shaffer, Yong, & Zakalik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부모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과 기본심리욕구의 하위변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간의 상관관계 역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영(2015)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윤석은과 하창순(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안정적인 부모 애착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주어진 환경에 자신감을 갖고 도전·탐색 가능케 한다는 선행연구(Blustein et al., 1995)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더불어 진로적응성과 기본심리욕구와의 상관관계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진로적응성이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한, 학습과 개인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한 동기 제공의 역할을 한다는 이수진(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안정된 부모 애착의 형성이 예측하기 어려운 진로환경에서 진로적응성의 향상을 통한 진로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의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는 각각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영향력이 매우 크고, 부 애착과 모 애착이 각각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주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진로적응의 한계를 보일 수 있음을 주장한 이채리(2016)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매개의 영향력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를 보이며, 한부모 가정과 같이 부 또는 모의 결여로 부와 모 양쪽의 안정된 애착 환경 형성이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한 매개로써 진로적응성 증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살핀 본 연구는, 초기 관계에 초점을 둔 부모 애착을 다룸으로써 현재의 진로문제의 원인에만 기인하지 않고 근본적인 내적 원인과의 관련성을 살폈다는 데에 그 의의 있다. 또한 후기 청소년에서 성인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모의 돌봄 범위에서 벗어난 성인 자녀와의 애착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완전 매개함을 밝힌 본 연구는, 그와 관련된 연구가 현저히 부족함을 감안할 때,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 향상에 기본심리욕구의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셋째,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한 개입영역으로써, 진로적응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조력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의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상담 실제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개인의 가장 근본적인 애착의 안정화가 진로적응성의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변화하는 진로환경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스스로를 믿으며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지식이 아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지지적 관계에서 비롯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일방적 지시위주의 권위적 태도 대신, 신뢰와 존중 속에 자녀를 격려 하고 지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진로 상담이 주로 진로 관련 정보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본 연구 결과는 현재의 단기적인 진로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를 살피고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의 병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불안정한 부모 애착의 경우,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로 인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자신감 결여로 원만한 진로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부모-자녀 간의 대화 개선을 위한 대화법 교육 또는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상담,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는, 부모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한 내담자의 진로적응성을 다루고자 할 때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한 상담적 개입이 도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내담자의 자발적 목표설정과 수행에 대한 지지 및 의견 존중을 통해(강성진, 유순화, 최혜경, 2014) 통제·조절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도모하여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내담자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유도해 진로문제에 보다 의욕적으로 탐색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

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담자의 능력에 적절한 과제를 반복 경험케 함으로써 자신감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실패 경험에 대한 공감과 격려를 통해, 좌절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유능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법 등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안정된 관계 경험과 관계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또는 안정적인 집단상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안정된 관계 경험과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상담현장에서 부정적인 관계 경험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타인과의 애착 형성을 촉진시켜줌으로써 부족했던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켜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한 내재적 동기화를 이끌 수 있게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의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 설문과 소수의 수기식 설문이 혼합된 형태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자가 실제 대학 재학생들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수 있고 대표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집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방법에 있어 객관화된 자기보고식 설문 측정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택하려는 반응경향성이나, 실제보다 과장·축소 및 왜곡된 응답 형태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대학생으로 대상을 제한했던 본 연구와 달리, 후기 청소년에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상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연구 대상까지 확대하여 연구해 봄으로써, 본 연구 결과와 비교 재검증 해보는 과정이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들의 남녀 성차를 살폈는데, 학년별, 전공별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이 졸업시기에 근접할수록 진로적응성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적 연구방법 뿐만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의 깊이와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다른 진로 변인에 비해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성진, 유순화, 최혜경(2014). 여대생의 기본 심리욕구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6(5), 1058-1074.

김선미(2018).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청소년의 자아감, 대인관계, 사회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개념적 모형의 탐색.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정(2012). 문화적 자기, 성격유형, 직업가치유형에 따른 진로적응성 분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아영 (2010).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학회, 24(3), 583-609.

김은영(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또래애착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점희(2017).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특성불안이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선(2017). 아동의 부모애착과 분리개별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정(2009).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과의 관계: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승태, 박미하, 양복만(2012). 대학생의 인간관계와 학습의 자기주도성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5(3), 39-60.

박수길, 이영희(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41-160

박수영(2016). 공학계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백희숙(2012). 고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적응 간의 관계. 아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소아, 배성아(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22(9), 227-299

송보라, 이기학(2014). 인간생태체계 모형(Human Ecosystem Model)을 바탕으로 진로적응성과 가족환경 요인들 간의 관계모형 검증 - 남녀 대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211-232

오지혜, 윤혜미(2017).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 1-12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순화(2016).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6(3), 149-168.

유지연, 신효정(2019). 진로적응성 연구의 문헌고찰: 진로구성주의 이론의 진로적응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2(2), 1-24.

윤석은, 하창순(2017). 특성화고 학생들의 부모 애착과 진로적응성 관계: 정서지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6), 239-256

이강우(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조건적 관심이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희, 정태연 (2008). 자기결정성을 토대로 한 학습동기 경로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4(1), 77-99.

이명희, 김아영(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이상훈(2005). 부모 및 또래애착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진(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활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315-338.

이채리(201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진로결정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은(2012).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소연(2015).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지은(201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규판(2008). 취업불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46(2), 55-75.

최옥현(2006).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ion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16-432.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88). The role of attachment in personality development, InD.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3‐35.

Bretherton, I., & Munholland, K. A.(2008).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Elaborating a central construct in attachment theory.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102-127). New York: Guilford Press.

Creed, P.A., Muller, J. & Patton, W. (2003). Leaving high school: the influence and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related confidence. journal of adolescence. 26(3). 293-311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 Plenum.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Deci, E. L., & Ryan, R. M. (2002).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431-441).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Germeijs, V. & Verschueren, K. (2011). Indecisiveness: Specificity and predictive validity. 25(5). 295-305.

Grolnick, W. S., & Ryan, M. D.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43-154.

Hall, D. T. (2002). Careers in and out of organiz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 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Lapsley, D. k., Rice, K.G., & Shadid, G. E. (1989).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86-294

Pulakos, E. K., Arad, S., Donovan, M. A. & Plamondon, K. E. (2000). Adaptability on the workplace: Development of a taxonomy of adaptive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4), 612-624.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y, 55, 68-78.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47-259

Savickas, M. L., Nota, L., Rossier, J., Dauwalder, JP., Duarte, M. E., Guichard, J., Soresi, S., Esbroeck, R, V., Vianen, A. E.M.(2009). Life designing: A paradigm for career construc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239-250.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661-673.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Super, D. E. (1990). A life span, life space approach to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2nd ed.):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197-261.

Super, D. E., & Knasel, E. G. (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9(2), 194-201.

Tak, J. K.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Korea fro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712-715.

Wei, M., Shaffer, P. A., Yong, S. K., & Zakalik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Zacher, Hannes (2014). Career adaptability predicts subjective career success above and beyond personality traits and core self-evalu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4(1), 21-30

1차 원고접수 : 2019. 11. 29.
수정원고접수 : 2019. 12. 15.
최종게재결정 : 2019. 12. 30.

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19, Vol. 8, No. 3, 111-12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Hee Seo Jeong-Sun Lim
Seoul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 significance verification of the mediated effect were conducted on 319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domestic universities using the scale of parental attachment, career adaptability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Through T-test, gender differences were analyzed for parental attachment, career adaptability,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pending on gender differenc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al attachment, career adaptability,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areer adaptability.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s were completely mediated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s were completely mediated. Finally,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Parental Attachment, Career Adapt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s